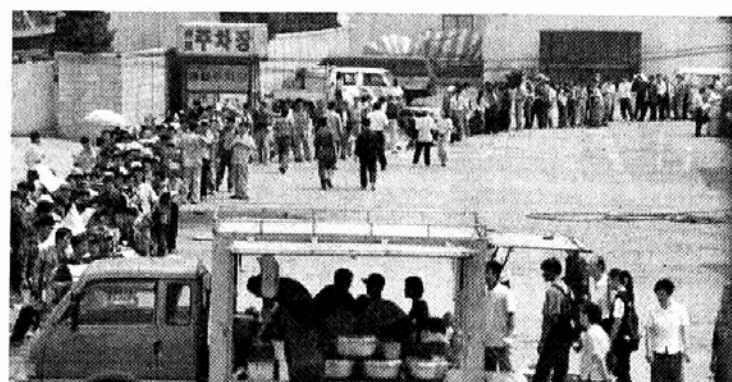




◇200여 어린 생명을 앗아간 화성 씨랜드 화재참사는 우리사회에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뿌리깊이 배어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다. 사진은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피해자 유족들.



◇IMF이후 사회이슈로 떠오른 노숙자 문제. 사회 한편에서는 과소비와 무절제한 향락에 빠져들고 있는데 노숙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급식을 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노숙자 행렬.

잇단 화재참사... 옷로비사건... 얽아진 중산층... 불법도청...

“한국의 세기말 불행했었다”

불교계 사회계몽 공식기구 만들어야

“한 번 잘못을 저지르고도 깨우치지 못한다면 악인과 다를 바 없다”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올 한해 우리사회를 돌아보면 국민 모두를 실망과 좌절에 빠뜨렸던 사건들이 하나같이 상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고, 반복되는 여러차례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왕따문제로 시작된 교육현장의 신음은 급기야 교실이 무너지는 중병으로 치달았고, 인건 호프집 화재참사와 같은 ‘청소년 교육부재’라는 ‘사망선고’를 받기에 이르렀다.
 특히 씨랜드 화재참사를 당하고서도 아무런 대책없이 인건 호프집 화재참사를 부른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기성세대의 무책임이라는 지탄을 받았다. 수해도 마찬가지다. 해마다 겪으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

우지 않아 애꿎은 국민들만 희생당했다.
 옷로비 의혹사건이나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뇌물을 많이 주는 국가로 선정된 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강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불법도청 등의 사생활 침해도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또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과 과소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소식을 한꺼번에 접하면서 말 그대로 ‘무너진 중산층’들은 불공평한 세상을 닮은 처지가 됐고 늘어난 노숙자들은 우리사회의 아픈 모습을 그대로 비쳤다. 그러나 민생을 돌보는 커녕 오직 자신들의 밥그릇싸움에만 열을 올리는 정치권의 추악한 모습은 국민들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다.
 이 모두는 따지고 보면 정부의 정책부재

나 무책임, 무사안일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6가쪽이 릴레이로 신장을 기증한 일이나 90살 노인이 36억이라는 거금을 장학금으로 내놓은 일, 어느 교사가 월급을 조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남몰래 도운 일들은 사람들의 기억에조차 없을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아무도 터널을 지나듯 올 한해를 보냈다.
 이와 함께 복제양을 태동시킨 생명공학의 인간공염성 과다나 다이옥신 과다, 유전자 조작식품, 사형제도 폐지 등은 새 천년을 앞둔 우리에게 새로운 숙제거리로 등장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사회상황 속에서 불교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수해 때 자발봉사활동을 펼친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어느때 보다도 커지고 있는 요즘 불교는 거꾸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의 발달로 비루

되는 문제들이나 사형제도 폐지 논란 등 종교의 가르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수승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불교는 그 가르침을 제시하지 못했다.
 <잡아함경>에 “가장 훌륭하게 남을 위해 이익을 주는 일은 올바른 지혜로 이끌어들이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다. 이제는 불교도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법에 기초해 적극적으로 정도(正道)를 제시, 인류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국토를 구현하는 첫걸음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교리연구 및 해석과 공식적인 논의구조 및 기구가 필요하다.
 20여년간 복지활동을 펼쳐온 성운스님(삼천사 주지)은 “불교도 이제는 사회현상에 대해 전진적인 사고로 임해야 한다”며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문제를 연구하는 사회문제연구소와 같은 기구를 각 종단마다 설치하고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교계 재야단체의 한 불자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고작 성명서 하나 내는 정도가 불교단체들의 사회적 역할이었다”고 꼬집고 “재야단체를 비롯한 각종 재야단체 및 신행단체들도 사회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야 하며, 불자들이 활발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명우 기지(mwhan@buddhopia.com)



법연스님 (삼천사 주지)

그냥 한해 갈뿐인데

세상이 너무 떠들썩

웬지 뒤틀리는 심사

가끔 그 앞을 지나 때마다 느끼는 바이지만 평소 재지에 거주하는 주민수에 비해 좀 크다 싶은 건물의 슈퍼마켓에는 차마서 벽면까지 새 천년을 맞이하는 세월이라고 쓴 종이가 마치 만국기처럼 휘날리고, 면사무소 길 건너 맞은 편에 세워진 사다리꼴의 철재 광고대에는 겨울 바람에 한껏 배불러 나부끼고 있는 플래카드 천 조각에 쓰여진 내용들도 새 천년과 무관하지 않은 상술과 알뜰함이 일색이다.
 시골이라고 해서 도시 것들이 몇달 전부터 주야장천 외쳐대는 새 천년 맞이의 흥을 돋구지 말란 법도 없고 그런 흥흥같은 흥마저 없다면 한산한 면소재지 길들이 얼마나 황량할 것이며 사람들의 생활들은 또 얼마나 고단한 것나 싶어 고개가 숙여지기도 한다.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면 과

해마다 거리낌 없이 가지를 받은 나무는 긴 가지 넓은 잎사귀를 키워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뾰두가 잘리고 뾰두가 잘리는 나무는 가지도 안으로 뾰고 가지도 안으로 세우는 ‘서슬푸른 숲의파리’ 새하얀 꽃의 텃지나무 울타리가 됩니다.
 “길가는 사람들은 마음씨 상냥 했어요...”
 소년은 위해서 걸음을 멈추고 텃지나무 가슴을 열어 주었습니다. 활엽수의 시원함과 텃지나무 울타리의 튼튼함을 아울러 가리려는 것은 아직도 욕심으로 인생을 보는 어린 생각인지도 모르니다.
 “얼음 시를 안풀려도 감동은 흐르고 동지 괄속 안먹어도 나이 한 살 더 먹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또 새로이 맞이할 때에는 세월의 흔적이 자기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먼저 묻고, 그것에 걸맞은 열매를 키워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4개 광역권개발 74조원 투입 농어촌 부채감감 특별법 등 좋은소리 못듣는 총선 善心정책

부처님께서는 바른 정치란 곧 ‘정법’을 펴는 것임을 설하셨다. 그리고 모든 정치행위는 국민의 복리를 향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하지만 요즘의 정치 현실은 이런 부처님의 법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선심경쟁에 나선 것이 그렇다. 특히 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을 갖고 있는 정부여당이 내놓는 선심정책은 ‘한심한 작태’로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다. 그 정책이라는 것이 경제원칙도 무시한 채 오직 ‘표’만을 의식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4대 광역권 개발에 74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나, 농업 정책대출 금리를 5%에서 3%로 낮춰주는 내용의 ‘농어촌 부채감감 특별법’ 등은 현실성을 완전히 무시한 ‘표몰이’의 산물이라고 지적받고 있다. 나중에 되돌아올 경제적 여파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자리보전’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선거만 끝나면 물가가 턱없이 치솟고 실업률 또한 급증하는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선거철 경제의 거품만 부풀렸던 선심정책이 과연 우리 경제와 삶에 어떤 악영향을 끼쳐왔는지 냉정히 판단해야 할 때다.

올 교통사고 사상자 사상최대 66만명 예상

7년만에 다시 세계1위 ‘처육’

인구 60만명의 청주나 전주 시민들이 일년동안 모두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죽는다면? 하지만 이것이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다.
 순해보합협회가 올들어 9월말까지 자동차보험 사고를 분석하고 13일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교통사고로 49만1천896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우리나라 사상 최대의 교통사고 사상자인 66만여명이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92년에 이어 7년만에 또다시 교통사고 세계 1위의 ‘처육’을 눈앞에 두고 있는 셈이다.
 교통전문가들은 “지체차로제” 폐지, 제한속도 상향조정 정책 등으로 난폭 운전이 증가한데다, 교통사고가 증가할에도 경찰 단속인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주된 원인은 역시 교통법규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민의 식에 있다.
 불교에서 계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지키고 자신을 가다듬기 위함이다. 사회질서도 마찬가지다. 사회를 지키고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다. 미진한 교통정책은 다시 보완해야 하겠지만 아무리 좋은 법제도가 있다해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성숙한 시민의식만이 교통사고 세계 1위의 불명예를 떨칠 수 있다.

광운불교대학 제 4기 신입생 및 경전반 모집 안내

신입생 모집안내

- 학과목 안내
기초교리(불교학 개론), 불교역사 (인도·중국·한국불교사), 천수경·반야심경·부처님 일대기 사찰과 불자의 역할
- 교육기간
1년(2000년 2월 ~ 2001년 1월)
- 강의요일 및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원서접수기간
2000년 1월 31일까지
※전화 접수도 가능
- 입학식
2000년 2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광운정사 법당)
- 등록금
1년(교재비포함)-오만원(₩50,000)
- 이런 분들께 권합니다.
·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
· 세계적인 교리 공부
· 바른 생활생활에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
· 포교활동에 뜻이 있으신 분

경전반 모집안내

- 학과목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강좌
- 교육기간
1년(2000년 2월 ~ 2001년 1월)
- 강의요일 및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4시
- 원서접수기간
2000년 1월 31일까지
※전화 접수도 가능
- 입학식
2000년 2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광운정사 법당)
- 등록금
1년(교재비포함)-오만원(₩50,000)
- 자격
· 광운불교대학(기초교리과정)을 수료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자

문의 사무국 (02)389-8966
FAX (02)387-8529

광운정사 (광운포교원)
 서울 은평구 불광3동 484-78

졸탁동시

용맹정진 업장소멸 오직 이 길뿐!

◆철야용맹정진, 불자기본수행법교육: 매주토요일 저녁 7시에서 일요일 아침 7시까지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절대 숨차지 않고 혈덕대지 않으며 힘들지 않고 저절로 숫자 헤아려지는 완벽한 방법
 ◆석가모니불 염불법: 자동으로 염불이 이어져 빠른 시일에 염불삼매 이루어 화두 참선할 수 있는 상근이 되는법
 ◆한글 금강경 봉독법: 목탁치지 않고 자성의 운율로 힘차고 박력있고 리드미컬하며 신명나는 독경으로 중단전 차크라가 열려 감정통제가 자유로워지며 가슴에 맺힌 한이 화병이 절로 녹는 신심이 절로 나는 법
 ◆와선 호흡법(1,2) 행선염불, 선제 조도인간강법(33): 상기되어 피곤하고 머리 무겁고 열나며 침은 마르고 입술 타며 눈은 충혈되고 손, 발, 배, 허리, 무릎 차가워도 30분 정도 수행하면 쉽게 극복되는 심신건강법
 ◆업장소멸용맹정진, 특별소원성취기도 : 하루종일 쉬지 않고 호흡에 맞춰 절하며 참회와 감사수행으로 업장은 소멸되고 소원은 이뤄지는 환희로운 벽천 감동의 처음 공개되는 기도비법.
 ※철야정진 동참불자의 도움으로 소원인 16만평의 청정도량에 수행교육과 용맹정진 할 수 있는 법당 88평, 요사 80평 건축불사가 마무리 되어 갑니다.

아름다운 소리상
 불빛고요 소금상

법왕정사 수행원
 금강지체보궁, 두리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원면 석신리 소리산 참선캠프

전화 (0338)771-7745
 (011)9088-7745

發願已歸命禮三寶 「새천년 불국토」

2000年 新年特輯新聞 廣告案内

귀의 삼보하옵습니다.

그동안 현대불교신문을 관심있게 지켜보아주시고 물심양면 도와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는 새해를 맞아 온 누리에 부처님의 법음이 가득하기를 기원하오며, 본지는 정성을 다해 2000년 신년특집신문을 꾸미고자 합니다. 모두가 무루 동참하시어 하나되는 불교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천년 부처님의 큰 뜻을 전하는 신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새천년 신년축하 광고
규격 및 단가	5단 x 37cm - 80만원 5단 x 18cm - 40만원 5단 x 9cm - 20만원 7cm x 6cm - 10만원
제작일	99년 12월 24일(금)
제작면수	28면 합쇄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광고부 전화 02)737-8881 (대표) 02)732-1522 (직통) 팩스 02)737-0697

현대불교신문사